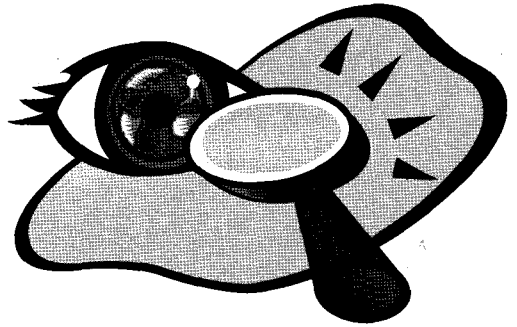


그것과 그들은 누구인가



소형 영사기

역 소형 영사기 시대를 연 사람은 일본의 목공이었던 사카키 히데노브였다.

1919년 어느 화창한 여름 날이었다. 목공소 주인은 사진기를 만지고 있었다. 사카키는 그 앞을 지나가다 사진기에 눈이 멈추었다.

“사카키, 이 사진기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이리 들어오너라.”

사카키는 몹시 기뻐하며 아주 즐겁게 사진기에 대해 배웠다. 그는 총명하고 진지해서 주인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이해했다.

“사진기란 것은 정말 신기해.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없을까?”



사카키의 열정은 사진기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새 그것은 그의 소중한 꿈이 되었다.

“지금 당장은 사진기를 만들지 못하니 먼저 사진 용구를 제작해 보자.”

이렇게 다짐하고는 각종 사진 용구를 제작하여 시중에 내다 팔았다. 1921년에는 사카키 상회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사진 용구 제조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지만 사카키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사진업을 하면서 쌓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더 독창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다. 바로 이 때를 맞추어 무성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술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카키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영사기라, 정말 좋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이용하는 것도 좋겠어.”

생각이 이에 이르자 사카키에게는 기막힌 사업계획이 떠올랐다.

“그래 맞아! 어느 장소에서도 상영할 수 있도록 작은 영사기를 만드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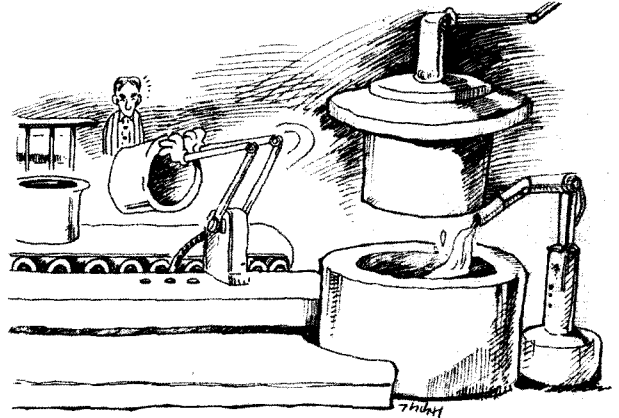
그는 명쾌하게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여러 가지 사전 지식과 사진기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카키는 자신 있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그

IDEA

리고 결국 1926년에 소형 영사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카키가 만든 35밀리 영사기는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의 영사기는 세계 각국으로 팔려 나갔다. 그의 기업은 소형 영사기 제조업체로 명성을 날렸다.

사카키는 스물아홉 살의 젊은 나이로 일본에서 알아 주는 기업인으로 성장하였다.



로보꾼

프레스란 철판을 강한 압력으로 때려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는 대부분 이 프레스 기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여기저기서 이 불행을 막을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다. 나가오의 로보꾼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프레스 가공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발명품이다.

발명가는 일본에서 프레스 가공업체를 운영했던 나가오.

“프레스 기계 때문에 생긴 사고가 벌써 다섯 건이군. 더 이상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나가오는 프레스 기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다음날부터 프레스 가공 기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그가 제일 먼저 착안한 것은 기존에 개발된 작업 보조 로봇트를 프레스 가공 기계에 부착시키는 방법이었다.

“가공물을 기계에 집어넣고 빼내는 작업을 프레스 기계가 동시에 해 낼 수 있다면, 다른 기계를 더 설치할 필요도 없고 사람도 안전할 수 있을텐데...”

그의 생각은 프레스 가공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작업은 생각보다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이것을 제품화하려면 다른 경쟁회사보다 더 빨리 개발해야 하므로 나가오의 마음은 초조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오의 결심과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새로운 성능의 프레스 기계를 만들어 냈고, 덧붙여 소형화에까지 성공했다.

“이것을 로보꾼이라 불러야겠어. 이 기계가 앞으로는 프레스 작업을 도맡아서 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나가오는 완성된 기계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가오의 새 프레스 기계는 이전의 프레스 공작 기계의 한계점을 모두 개선한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이나 다른 기계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철판을 집어넣고 또 빼낼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로봇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작업의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져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장점들이 소개되자 새 기계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나가오 제작소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나가오 자신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다. **발특9908**